

살림

## 죽음에서 살아나!

안병무

전태일이 살아나?

요즈음 20년 전에 이름 없이 분신자살한 전태일이 민중사 속에서 살아나 움직인다는 풍문이 거세게 돌고 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 소문을 죽은 시체를 석굴에 넣고 큰 돌로 막아놓듯 차단했다. 그래도 그의 숨(氣)에 접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만 갔다. 그럼에도 그는 한 희생당한 제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주기가 되는 금년에는 여기 저기 살아서 나타날 뿐 아니라 운동을 일으킨다는 풍문이 점차 신문에, 그리고 영상에도 나타난다.

혹시나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그런 사람 중에 그의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보는 사람은 없을까? 하여간 그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정 못한다. 전에만 해도 일부 신학하는 사람들을 움직여 민중을 만나게 하고 ‘민중신학’을 낳게 하는가 하면, 대학가에서 여기저기 나타났다고 모여든 학생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것도 한동안이었고, 함석헌님이 매년 그날을 기리는 모임을 가질 정도로 잠잠하다가 금년에는 대학가, 교회, 마침내

는 노동계에 나타나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다.

신문이 없는 말을 만들어 퍼뜨릴 리는 없다. 신문이야 언제나 체제옹호의 편에 서니까! 지금의 질서를 해칠 것 같은 것은 싫어하니까! 그러니 언론의 보도는 최소한의 사실보도라고 보는 수밖에. 그런데 이 풍문은 약간 무시무시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 정부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원자핵 쓰레기를 묻으려고 했는데, 꿈에도 예상 못했던 그 “촌놈”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무지막지하고 방자한 관리들에 대항해 일어났다. ‘안면도’라는,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곳에서다. 더욱이 점잖기로 유명하여 어떤 높은 사람이 “멍청도”라고 비웃을 만큼 분규 따위를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인식된 충청도에서도 변두리 주민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벌써 원자로 아홉 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 외국에서 근경에 일어나는 국민저항운동이라면 원자로설치 반대운동이 그 중심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 위험성을 몰라서인지 일체 반발이 없었다. 그 위험을 아는 일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떠들어 대도, 일반은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안면도의 ‘民’이 특히 다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정부는 바로 그래서 그 곳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상상했던 저들이 저렇게 분노하여 총궐기한 것이다. 너무도 의외의 충격을 받은 정부는 그 계획을 백지화하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저항따위는 상상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치적으로 원자로 40-50개를 어느 기간까지 세운다는 것을 ‘선진국’ 대열에 서는 상징처럼 자랑할 뿐 아니라 구체화하여, 세계의 원자력 보유국들이 치

열한 판매경쟁을 하게 만든 판인데, 이렇게 되면 그것들을 어디다 세우나! 더욱이 그 폐기물 처리장 따위는 미리 준비도 없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풍문을 돌린다. 그것은 살아난 전태일이 그 섬이 개발된다는 소문에 들떠서 그 사업을 영입하려는 한 청년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것은 비몽사몽의 경험이었겠지. 전태일은 그에게 지금 정부가 이 동리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며, 연구단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의 찌꺼기를 묻으려는 것이고, 그것이 까딱 잘못되는 때는 이 섬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다고 자세히 그 위험성을 설명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놀란 이 청년은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한단데 무슨 재간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체념에 찬 넋두리를 하니, 전태일은 분노하면서

“왜 못해! 나처럼 죽을 각오를 해도 못해? 그래도 죽으란 말은 아니야. 나는 나 하나 제물로 삼아, 자는 민중을 깨우려고 한 것 뿐인데 내 뒤를 이어 너무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죽었어! 그저 그같은 각오로 생존권을 행사하라는 것뿐이야.”

이에 놀란 그 청년을 통해 전태일의 ‘氣’가 이 섬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져서 마침내 국민을 그토록 깔보던 정부를 항복시켰다는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니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풍문이 들려온다. 연속 푸대접 받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친 지는 오래다. 우리 농토를 지키려고 버티다 못해 젊은이들이 거의 다 떠나고 약간의 독농자 외에는 대부분이 연로한 남자와 부인들만이 남고 무턱대고 도

시로 몰리는 바람에 농촌에는 날로 빈 집만 늘어간다.

마음만 먹으면 몇 천억 조 따위를 이웃집 강아지 이름처럼 부르고, 또 그런 사업을 공약하고, 극소수의 기업주들에게 꾸어주고(다시 받기를 기대도 않는 돈이 뭐 몇 십조라드라? 그것도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인데!), 정치 자금이나 뭐로 되돌아올 만한 데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매해 농민들의 피땀으로 생산한 쌀을 사주는 데는 선심이나 쓰는 듯이 줄다리기를 하는 정부다. 쌀 살 돈은 없다면서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잘사는 나라의 물품들을 매 년 몇 배씩 늘려 떠 맡긴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인지 뭔지가 정식 체결되면 우리 농민들이 다 죽게 될 텐데 그래도 돈 없다는 핑계로 팔장끼고 있을 셈인지 모르겠다. 이 정부는 그렇게 돈은 없다면서 소비품조반대운동, 절약운동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소리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페르시아만 전쟁에 1억인가 2억인가 하는 전쟁지원금을 보내고,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정부이다.

이런 정부가 한자리 수니 물가안정이니 하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내모른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판에 농민들은 고작 전에 하던 저항 방법으로 무조건 곡식을 관청에 신고와서 더 사 달라고 애걸만 할 때, 글썽 전태일이 여기도 찾아왔더라. 비록 어느 읍 농민회장으로 있지만, 정부의 사정이 이러저러 하니 정부도 별 도리 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농민을 설득하는 판인데, 전태일이 그에게 와서 싸우는 방법을 알려 주드래.

“내가 싸울 힘이 없어 나를 불태웠듯이 비록 몸같이 소중한 곡식이라도 일부 태워 버려! 그리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쌀 전량을 사주지 않으면 아주 팔지 마. 그게 바로 殺身成仁의

길이야.”

이 소리에 화닥닥 켜 그는 이 운동을 펴기로 했다는 것이다. 벼를 쏙고 거기에 불을 붙일 때 자기 살이 타는 아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쌀에 대해 죄스럽고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또 쌀을 팔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할 조합돈을 위시한 빚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도 안 팔기로 했단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읍에서 저 읍으로 계속 확산되는데, 그런 곳에는 어디나 전태일이 왔더라는 것이다. 이것도 바람이 싹고 온 전설 같은 얘기이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태일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기에 그 큰 신문들이 그 조그만한 국민학교도 못 나온 노동자의 죽음! 그것도 이미 20년이 지난 일을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심청이

심청이 이야기는 우리 고전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다. 그녀도 자신을 바쳤다는 데서는 전태일과 같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분류해 보면 여러가지가 얹혀 있다.

첫째는 심청을 산 상인이 있다. 저들의 목적은 돈버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장사치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서슴지 않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랴.

둘째는 저들의 공포의 대상이 있다. 간접적으로 나타나나 이 사건의 주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자 그것도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요구하는 횡포자다. 그렇지 않으면 행패를 부려 상선을 뒤흔드는 신이다. 한마디로 물귀신이다. 우리에게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아 심뽕이 아주 좋지 않은 귀

신이다. 이 귀신도 바로 그 상인들의 심보를 반영한 게 아닐까!

셋째는 종교의 역할이다. 한 중이 물에 빠진 봉사를 건져 준 것은 자선행위로서 종교가 체면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다. 그런데 그것은 근원 문제의 해결이 못 된다. 오히려 이 중은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면 눈을 뜰 것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떠나간다. 쌀 삼백 석은 이 봉사에게는 하늘에 별따기다. 그런데 왜 그 따위 소리를 남기고 떠나나!

정말 사람을 위한 종교인가? 그리고 신심으로 눈이 뜨다고 믿었나? 그러면 그런 쌀을 얻는 일에 자신이 함께 발벗고 나서거나 아니면 그에게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신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았으니 결국 그 다음의 비극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쌀 삼백 석을 착복하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저 장사꾼의 신이나 이 중이 믿는 신이나 제물을 요구하는 데서는 같다. 그리고 보면 物慾神이다. 정말 그런 신이 있나! 있다면 종교라는 탈을 쓴 사람들의 소유욕이 반영된 게 아닌가!

우리가 바란다면 바로 그 중이, 상인들이 심청이를 살 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사람의 목숨을 원하는 흠혈귀는 신이 아니다. 공양미 운운한 것은 당신 신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말했으나, 당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내 망발이오. 그러니 이같은 인간 매매는 안되오.”

이렇게 가로막고 나섰어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쩌면 그 상인들에게 크게 다치거나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에 그 중은 재물을 탐하고,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데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일 따름이다.



넷째는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입장이다. 그는 세 가지를 안중에 두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그 상징으로 심봉사의 부녀를 선정했다. 둘째는 유교의 효사상—이것은 으레 이 ‘충’의 사상에 이어지리라. 셋째는 불교의 사생관이다. 이런 것들을 두루 엮어 이런 얘기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대로 하면 힘없는 가난한 자의 구원의 길은 목숨까지 내건 효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심청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그는 가난에 찌들려, 아이로서의 특권은 고사하고 매일 쪽박을 들고 구걸하는 신세다. 결국 가난의 노예가 된 셈이다. 둘째 그는 유교가부장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효’라는 사상에 노예가 됐다. 셋째 그는 종교의 착취망에 걸려들었다. 넷째 결국 상인들의 돈에 팔려 생명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니 심청은 구조화된 악의 세력에 묶여 희생의 제단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심청이 도로 살아나서 왕후가 되고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심청이가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침으로 만사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사꾼은 쌀 삼백 석을 내서 심청을 물귀신에게 바쳐 파선 안되고 장사에 큰 이익을 보고, 유교는 심청에게 살신성인하는 효녀로 만들어서 상인들도 그리고 심청이 집도 잘 될 길을 열어주고, 불교는 그 유교의 노예적인 행위를 인정하여 그를 다시 살게 하고,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으니 모든 일이 두루두루 잘 된 것 뿐이다. 그러면 어느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상이라도 줘야 할 일만 한 것이 된다. 이렇게 꾸미는 것이 구렁이 담넘듯 한다는 말로 표현되겠지. 하나하나를 따지면 모두 사람 죽이는 데 협력했는데 말이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려면 심청전을 좀더 발전시켜야 하겠다:

심청이 연꽃을 타고 환생하여 왕비가 된 후 아버지를 찾아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방방곡곡 절에 쌓인 곡식들을 모조리 차압하여 배고픈 국민에게 나누어 주고, 공양미 운운하는 황당무계한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을 절대금지한다. 또한 유림들을 모조리 모아놓고 ‘효’니 ‘충’이니 해서 결국 가부장제도를 강요하여 양반 상놈 나누고, 남여를 구별하여 여자들은 품삯 없는 종으로 부리고, 그것을 그대로 확대시켜 ‘충’을 내세워 백성을 사유물처럼 부리며, 효니 충이니 열녀문이니 효녀문이니 하는 것을 세워주며, 여자를 영원한 노예로 삼아온 죄를 규탄하고, 상인들을 붙잡아다가 호되게 볼기를 때려주고, 다시는 인신매매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끝으로 왕비복을 벗어 내동댕이치면서 제 남편되는 왕에게 “네가 바로 모든 죄인의 괴수다”고 선언하고, 다시 자기 처녀 때처럼 엽매여 신음하는 이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간다...

수모를 당한 처녀 미리암의 결심

처녀가 애기를 뱌거나 해산했다면 오늘같이 개방된 세상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2천년 전에 그런 일을 당한 처녀야 오죽했으랴!

그런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민중들에게 추앙되어 신처럼 떠받들리게 되었다. 그 아들이 로마제국의 법으로 처형된 것이 그 개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갈릴래아 민중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졌다는 풍문이 퍼지고, 그게 그 민중들에게 신



앙이 되어버린 탓이다. 그런 신앙은 발전되어 그는 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태어났다는 신앙으로 확대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고백이다.

어찌됐건 그렇게 되므로 미리암의 상은 난처하게 됐다. 결국 한마디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쓴 마르코복음에도 훨씬 늦게 된 요한 복음에도 처녀 잉태 얘기는 없고, 신약 전체에서 이런 얘기는 완전히 묵살되어버린다. 단지 마태오와 루카만이 이런 민중의 신앙을 뒤늦게 실었다. 그리고 보니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혼한 요셉과의 사이의 미묘해 질 수 있는 갈등 얘기도 다루는 등 독자의 잘못된 상상을 풀어주려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난처한 면을 요셉의 오해를 푸는 얘기 정도로 가리우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그 아기를 임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그러한 판단이 바로 미리암의 찬가에서 뚜렷히 드러난다.

내 氣가 주를 찬양하며  
이 마음이 기쁨으로 작열한다.  
그가 이 비천한 그의 여종을  
보살펴주었기 때문이지.  
이제부터 오는 모든 세대가  
나의 복을 부러워하리라  
그는 내게 엄청난 일을 했다.  
끝없는 힘을 가진 바로 그이가

...

그의 힘센 팔로 힘을 드러내  
마음이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시고  
폭력의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밀어 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올리시고  
굶주린 자들은 그의 풍요로 배불리시고  
부한 자들을 거덜난 손으로 내보내신다.

...

이것이 수모를 당해 차마 대낮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난처한 처지에 선, 임신한 한 처녀의 비장한 각오였다고 소개  
하는 민중은 위대하다. 아마 이런 비장한 자의식과 각오 없이  
그 곤경을 이겨낼 길이 없었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배도  
할 말이 있다지만 그 할말이란 다분히 책임전가, 변명이 있다  
는 뜻인 데 비해, 이 처녀는 수모를 넘고 한을 넘어 이제 그를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혁명을 잉태한 자의식에 차 있다.

이것은 예수의 민중이 판단한 예수의 위상에 대한 인식과  
유리되지 않았으리라. 비천한 누명을 쓴 여자를 못 사람의 찬  
양을 한몸에 받는 위상으로 높이고, 초라한 민중을 높이고 권  
력을 휘두르는 자를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본을 독점한  
자들을 알거지로 만들어 내쫓고, 그날그날 먹을 것 없이 배굶  
는 이들에게 다시는 굶주림을 모를 양식을 주게 하기 위해 오  
신 이가 바로 그 처녀가 수모를 견디면서 임신해서 잉태한 그  
이다. 그렇다면 분륵한 여인에게서 났다면 어때! 아니 창기  
에게서 났다면 어때! 아니 창기에서 났다면 그가 이미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혁명이지. 계급사회의 의식구조를

근본에서부터 깨는 혁명적 사건이지!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옳다. 그런 일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자들이 떨지!

국민학교도 4년 중퇴! 하잘것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탓이다. 그런 그가 죽은 지 20년이 된 오늘의 세상, 여기 저기서 ‘氣’가 되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는 대학가를, 노동권을, 그리고 이른바 학자라는 ‘먹물들’을 움직이고 있다. 우리 헌정사의 어느 대통령이, 어느 권모술수가 이런 자리에 앉았나?

사람들은 전태일이 교회에 다녔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다닌 교회는 그에게 문을 닫았다. 그의 뜻을 그렇게 수용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 어떻게 그와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를 생각하면 뒤이어 갈릴래아의 예수를 생각하고 그의 계보에 편입시킨다. 계보라기보다는 그의 혈통으로 간주한다. 까닭은 나는 예수에게서 산제물의 원초적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2000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어도 나는 그와 교감하고 있다. 이 교감은 시공의 거리를 넘어선다. 나는 전태일을 못 보았다. 그가 자기 몸에 불을 그어 댈 때는 연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의 현장도 못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그와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움직였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교감은 예민해진다. 그런데 그 교감은 그대로 나자렛 예수에게로 이어진다.

이런 나의 경험의 객관성을 요구하지는 말라. 나는 애당초 편파적일 때만 바른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실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편파적으로 사랑한다. 예수는 팔레스틴의 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내가 선택한 편파의 원천이다. 이 원천에서 전태일을 볼 수 있기에 그가 한 일은 흘러간 한 사건이 아니고, 또 오늘 전태일의 삶의 행태에서 2000년 전의 예수의 사건이 더욱 생생한 현실로 현재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건은 전태일의 사건에서 오늘에 인카네이션(肉化)하여 내 삶에 파고 든다. 그렇다면 이소선 어머니를 통해 미리암의 육화를 경험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  
한국신학계에 내놓는 본격적인 역사의 예수 연구  
민중신학자의 눈으로 파헤친 예수

•  
한국신학연구소 / 300면 / 5,000원

---